

GM 군산공장 비정규직 200명 해고 통지

별다른 보상없이 내쫓겨... 협력업체 연쇄 해고도 현실화 전북도상공회의소협 “충체적 위기... 회생방안 마련” 촉구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따라 정규직은 물론 사내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직원도 연쇄 해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퇴직금과 위로금 등 일부 보상을 받고 퇴사를 중용받는 정규직과 달리 이들은 별다른 보상 없이 내쫓기게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따라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이 3월 말까지 회사를 떠나라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지난달 12일 군산공장을 폐쇄한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자는 이달 말까지 회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퇴직금 외에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별도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후한 조건의 희망퇴직 대상은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 군산공장에서 일해온 200여명의 비정규직 근

로자들은 어떤 추가 보상이 없는 채 회사를 떠나야 하는 처지다.

비대위는 “정규직 근로자들은 희망퇴직 퇴직금과 위로금 외에도 별도로 자녀 학자금, 차량구매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전원 해고해야 한다”며 최소한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의 위로금이라도 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파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공장 인근에 위치한 130여 곳의 협력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수는 1만2000여 명에 이른다. 군산공장 폐쇄로 상당수 협력사들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 이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상공회의소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현대중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8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따라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이 3월 말까지 회사를 떠나라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급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따른 시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북수출의 30%를 차지한 한국GM의 폐쇄 결정이 내려져 압박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총체적 위기의 전경경제를 위해 군산공장 회생방안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군산=박승기기자 nogusu@연합뉴스



전남도는 지난 28일 영암군 미암면 미암생태숲 일원에서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전동평 영암군수, 우승희 전남도의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동백나무 1000여그루를 심었다. <전남도 제공>

‘숲 속의 전남’ 1000만 그루 심기 첫 삽

‘1가정 정원만들기 운동’도

전남도가 브랜드시책으로 추진 중인 ‘숲 속의 전남’ 만들기를 위해 올해 1000만 그루 나무를 심는다. 도는 지난 28일 영암 미암생태숲 일원에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첫 삽을 떴다.

전남도는 이날 영암군 미암면 미암생태숲 일원에서 숲속의전남협의회, 숲돌보미, 지역주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백나무 1000여 그루를 심었다.

이 곳은 이미 조성된 산림욕장, 생태숲과 연계해 올해부터 기차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는 곳이다. 아름다운 경관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청단풍·동백·느티나무·산뽕나무 등 4000여 그루를 심어 제2의 기차랜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날 첫 나무심기를 시작으로 올 한 해 전년보다 45억원 늘어난

677억원을 들여 매력있는 경관숲 1650ha, 돈이 되는 소득숲 1650ha 등 총 3485ha에 1000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3월부터 5월까지를 나무심기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32곳에서 각종 나무심기와 나무주기 행사를 연다. 여수 등 17개 산림조합에서도 나무시장을 운영해 누구나 쉽게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하고, 나무심기 목표량의 80%인 800만 그루를 보충에 심기로 했다. 도는 또 (사)숲속의전남과 함께 ‘1가정 3대 정원만들기 운동’도 추진한다.

이날 나무심기에 참가한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숲을 조성하는 일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한 중요한 일”이라며 “집 앞 화분 농기, 자투리 공간 나무심기 등 생활 주변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창군,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3·1절 맞아 위문품 등 전달

고창군은 지난 28일 제99주년 3·1절을 앞두고 고창지역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을 방문해 국가에 대한 회생과 공훈에 경의를 표하며 위문품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우정 군수 등은 이날 의병활동을 한 독립유공자 최중문 선생의 손자 최은호씨와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고창 출신의 의병이자 독립운동가인 고재현 선생의 외손자 박철구씨, 독립유공자 이용식 선생의 자녀 이정애씨 가정을 찾아 위로와 함께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 자리에서 박 군수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들이 생존해 있다. /고창=박형진기자 phi@kwangju.co.kr



봄 마중 나온 복숭아꽃 활짝 남원시 금지면 임암마을의 한 비닐하우스에 봄을 재촉하는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다. <남원시 제공>

민속국악원, 토요국악초대석 10일부터 시작

풍류마루·판소리마당 등 공연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이 매주 토요일에 다양한 장르의 국악공연을 선보이는 ‘2018 토요국악초대석’을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은 어린이를 위한 국악공연 ‘이야기 보따리’가 진행되며 둘째 주에는 기악 독주와 병창 등 우리 민속음악을 감상하는 ‘풍류마루’가 펼쳐진다.

셋째 주에는 국악과 다른 장르의 융합 공연인 ‘국악타파’가 열리며 넷째 주에는 판소리의 명맥을 잇는 ‘판소리마당’이 관객을 찾아간다.

토요국악초대석은 7~8월을 제외하고 11월까지 이어진다.

모든 공연은 무료며 선착순으로 100명을 예약받는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100년 향한 호남 정통지

광주일보

덕남동 -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20만원 (평당)

■ 문의. 010-3605-50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서·전원주택지

- 장성 북이면 장성면 11953㎡(3615평) 매도 6억4천
- 완도 악산면 득암리 바다집 2481㎡ 단박집합 분할가 2억4천

주택·원룸·아파트

- 농성동 대지 156㎡ 집 96㎡ 1층전세 4천안고 1억4500
- 월산동 2층 상가주택 땅 106㎡ 건평 117㎡ 1억6천
- 월산동 소방도로코너 2층 상가주택 땅 93㎡ 집 94㎡ 1억2300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4천

투자·매도·교환

- 금남로5가 대로변 북동상업지 2010㎡ 병원 오피스텔등 적합 52억
- 보성군 화천면 동굴리 계획관리지역 80718㎡ 공장등있음 14억
- 무안군 운남면 내리 전원주택 등 적합 5000㎡ 2억
-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전 1663㎡ 도로접 1억3천
- 담양군 월산면 가든 땅 1568㎡ 상가주택과 교환 될 7억
- 제주도 서귀포시 별장 땅110여평 건물3층65평형 엘리베이터 10억2천
- 월산동 무진중부근 원룸적합 379㎡ 소방도 접 4억천
- 충장로 5가 도로접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833㎡ 창고등 적합 1억5백만원
- 월산동 월산아파트옆 664㎡ 주택·사찰 적합 4억6천

상가건물

- 순천만 판서 대대동 땅 332㎡ 건평 285㎡ 방 8년매출 1억선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충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 265㎡ 건평 1001㎡ 10억5천
- 양동 모빌·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12억5천
- 월산동 버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 유동 삼상병원부근 대지 598㎡ 건평 334㎡ 식당등 다용도 9억2천
- 월산동 농성초고 건너편 대지 132㎡ 마트와 주택(3층) 189㎡ 4억천

급매

- 무안군 삼향면 맥포리 담 2002㎡ 차량진입 은행 3700 매도 3500
- 장성 북이면 수성리 전 2136㎡ 창고 등 적합 4500만원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충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 500㎡ 매 24억
- 나주시 성북동 1층상가 대 489㎡ 건 322㎡ 매 7억2천
- 광산동 원릉 대 300㎡ 매 7억8천(보1억, 월4백만, 안집)
- 오선동(친곡산단) 대 785㎡ 건 600㎡ 매 21억(보2억, 월900만)

토지

- 서구 서창동 대지 2중주거지역 1,760㎡ 매 13억6천
- 광산구 남산동 대지 1중주거지역 421㎡ 매1억5백만
- 임암동 효천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 3,800㎡ 매 2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비야동 자연녹지 6,130㎡ 매 3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코너자리 대지 612㎡ 매 12억
- 광산구 운남동 생산녹지 3,000㎡ 매 13억2천(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모텔허가 특)
- 남평읍 상곡리 전 임야 9,240㎡ 매 8억4천(전원주택부지 적합)
- 도곡면 원화리 계획관리지역 나대지 5,355㎡ 매 33억(요양병원적합)
- 담양군 대전면 상산리 1중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창고적합)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 금천면 석전리 계획관리지역 대지, 담 2,240㎡ 매 4억6천
- 정읍시 신정동 전 3,300㎡ 매 5억원 (전원주택, 가든식당 적합)
- 고흥군 송림리 전 17,000㎡(약 5천평) 매 3.3㎡당 2십2만원 (토목공사원로, 바닷가토지, 남동향, 펜스, 커리반, 전원주택, 태양광적합)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건물임대

| 병원적합 |

건물명	일신방직 내 건물
위치	광주 북구 임동 100-64번지(나동)
대지면적	5,464㎡
연면적	4,792.83㎡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병원등 용도변경 가능)

층별	면적(㎡/평)
지하	499.1㎡(151평)
1층	655.2㎡(198평)
2층	1,064.2㎡(322평)
3층	1,064.2㎡(322평)
4층	1,064.2㎡(322평)
계	4,346.9㎡(1,315평)

임대료 별도협의(리모델링 비용지원)

권장업종 병원/학원등

장점 도로접(2차선 양방향), 시내중앙, 일신방직 직영임대

임대문의 062-510-5120
일신방직 관리팀